



통원 13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2. 11. 23.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우리는 간다 조국의 품으로

박 노 해

우리는 간다 조국의 품으로
조국이 우리에게 반역의 낙인을 찍어도
우리는 간다

이 땅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 나라의 슬픔과 기쁨속에 자라나
푸른하늘 맑은 강 이슬맺힌 대지위에
기쁜 노동과 해방의 노래를 불렀다
조국이 우리에게 쇠창살이어도
지하밀실의 깊고 긴 비명이어도
우리는 간다 조국의 품으로

사랑하는 친구여
이제 더이상 봄을 기다리지 말자
우리 함께 역사의 봄을 찾아나서자
우리의 이마위에 우리의 깃발위에
반역의 낙인을 찍는 것은 조국이 아니다
조국을 짓밟고 선 총칼들일 뿐이다
조국이 우리에게 죽음이어도
우리는 피어난다 민들레꽃으로
우리는 간다 어둠에서 어둠속으로
목숨바쳐간다, 흐느낌으로 간다
사랑하는 조국의 품, 민중의 가슴팍으로
피로 쓴 "노동해방"
아! 아! 생명의 깃발로 간다

* 박노해씨 면회과정에서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 박노해—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무기형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로 수감

곰비 임비 평화의 꽃 아름다히 필지이다.

권 오 현(후원회장)

"무엇하나 옳게 해 내지도 못하고 징역만 살았지요"

깊은 사색의 잔주름 얼굴에서 흰 머리칼 하나 하나에 까지도 지난 날 파란만장의 삶을 말해 주는 것일까. 다섯번 체포되어 28년을 징역살고 나오신 윤희보 선생님을 몇번이나 줄라 말씀을 들으면서, 식민지 땅에 태어나 참혹한 역사의 질곡을 살아야 했던 비슷한 세대들의 단면이 가늠해지고, 한 사람의 삶이 타고난 운명이라기 보다 사회적, 역사적 조건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을 익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늦가을, 아직도 활활타는 단풍으로 단장된 북한·도봉이 울타리처럼 서 있고, 백운대·만경대·인수봉이 빼어난 자태로 보이는 산밀 마을 수유2동 279-66번지, 바로 4.19묘소 입구 네거리 근처의 선생님이 사시는 집은 방 2개의 전세집이었다.

특별히 의학공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질병, 더욱이 체포당할 때의 복부관통상과 고문 후유증까지도 손수 침과 뜸과 약초들,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오신 것으로 알려진 선생님은 마침 방문자가 찾았을 때에도 동의학 사전을 넘기시며 긴 체침을 저려오는 무릎아래 이곳 저곳에 깊이 꽂고 계셨다. 누님께서 백병원에 입원하여 문병을 가셔야 했기에 약속된 40분으로 선생님의 76년 발자취를 짚어 보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분단의 아픔

선생님은 1917.10.10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수내

리(지금 성남시)에서 열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파평윤씨, 봉건왕조에선 이름난 가문이었고 선생님이 태어나실 무렵만 해도 문전옥답 15,000평이 있을 정도의 중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친께서 유사종교(보천교)에 심취되면서 남은 재산마저 탕진하게 된다. 열살 때 수원으로 옮겨 살면서부터는 어머니의 샅바느질과 일찍 점원으로 나가게 된 형님의 노력으로 생활하게 된다. 월사금을 몇달이나 못내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가난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열 다섯에 수원신흥보통학교를 졸업, 곧 바로 동화병원에 일자리를 얻어 청소로부터 화부일, 온갖 심부름 따위 일을 하게 된다.

"병원일을 하면서 인간노동의 신성함과 함께 임노동관계의 부당함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입원한 항일투사들로부터 나라 잃은 고통과 나라 찾는 일에 몸바쳐야 하는 사명감도 익히게 되었어요."

1936년 배워야겠다는 열망으로 북간도 용정촌 대성중학에 단신으로 뛰어가 입학하기도 했었지만, (형님의 병환으로) 두 달동안의 중학생활동을 끝으로 수원병원에 되돌아와야 하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을 왕성한 독서로, 역사·문학·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가며, 한편 조동호(입원환자-여운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 하신 분), 김장성(수원경문사 사건), 차계영(독립운동가)씨 등을 알게 되고, 한계창, 정만화, 박지정, 진기봉씨등을 통하여 민족해방과 사회변혁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쌓아 나가게 된다. 1940년 무렵 영등포로 생활터전을 옮

거 막노동을 하다가 곡물, 해산물 가게의 점원일을 하게 된다. 이때는 이미 지하독서회등 씨클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감옥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1943.9 치안유지법으로 수원경찰서에 구속-78일 만에 석방. (지하 반일씨클사건으로 코민테른 결정서 '조선문제테제'를 친구에게 보낸 혐의)

1944.12.22 조선공산주의자 협의회 사건으로 경기도 경찰국에 구속. 45.8.16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아 출감. (이때는 서울, 청진 등 전국에서, 김일수, 서중석, 이정운, 정창섭, 신승혁씨등 수백명이 검거되었다.

이렇게 일제 때는 식민지 지배에 맞섬으로 감옥에 갇었다면 해방된 조국에선 왜 또 수감을 차야 했던가.

"자주독립정부를 세우려는 3천만의 염원은 다른 외세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실질적 해방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외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해방공간의 어수선했음, 외세의 교체, 분단, 전쟁 이것이 객관적 정세라면,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지는 선생님의 젊음과 열정의 모두였다.

조공영등포구역 당 활약, 협동조합설립 합법활동, 50년초 체포, 전쟁, 9.28 서울후퇴, 평양-강계도착, 간부학교 3개월 수료, 황해도 신천군 인민위원회 보건과 근무, 51.11 금강청치학원 9개월 수료, 52.11 늦게 서울 돌아옴. 돈암동에서 체포, 서울지법에서 10년 선고, 4.19이후 재심청구, 5.16으로 기각 10년 6개월 안에 63.5.10 대전형무소에서 출감.

"자주독립은 내 나이 10대부터의 바램이었고, 통일조국은 분단이후의 한결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전선 이동에 따라 조국땅 남·북을 밟았을 뿐입니다. 내가 왜 간첩입니까. 그래서 (전쟁때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4.19혁명후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마포형무소에서 비전향자는 특사(5사)에 수감되어 있었다. 수없이 진행된 사상점검에서 저항하다 18일간 뒷수정차고 징벌당하는 등 마치 죽음과의 싸

움같은 5~60년대의 감옥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압제의 사슬에서 숨겨간 수많은 영령들 앞에서는 오히려 사치스런일 뿐이라 하신다. 이인모, 신현철 선생님이 인쇄공장에서 함께 일했고 그후 재심 때 김도한, 한백렬 선생도 만났다고 한다.

긴 옥바라지를 하셨던 어머니는 90년에, 아버님은 69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열남매에서 형님, 누님, 누이동생들 다섯은 북쪽에, 다른 다섯(두 분은 돌아가심)은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헤어져 살고 있다. 선생님의 가족사는 바로 이 땅의 분단사였다.

박선애님과 결혼하여

1966년 선생님은 옥중동지 박선애(1927년생)님과 결혼, 신림동에서 화원을 차리고 단란한 한 때를 보내시며 귀여운 따님 희선(1969년생)을 낳는다. 잠시 부인 박선애 선생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

아버지 박준창님은 일본에 유학중 3.1만세 사건으로 붙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루는 등 항일정신이 투철한 교육자였고, 오빠 박남규님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문학, 조각, 서예 등 재능많은 분으로 해방 후 사회운동을 하다가 피살되었으며, 남동생 박완님도 소년 빨치산으로 활약하다 전사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박선애 처녀는 해방 후 여성운동, 사회운동을 하게 되었고, 전쟁때는 여동생 박순애님과 함께 입산, 발치산 활동을 하다가 52년 대공세 때 회문산에서 포로로 잡히게 된다. 포로수용소, 대구, 공주, 서대문, 광주, 대전감옥을 옮겨다니며, 13년반을 옥살이하고 65년에 출소 하셨다. 함께 잡힌 여동생은 무기형을 받았으나 병보석으로 60년에 출소하셨다.

외세와 분단, 전쟁과 살육,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거침없이 살아오신 전사답지 않게 아직도 때묻지 않은 조선의 딸처럼 겸손하고 부끄럼타는 얼굴로 솔잎감주를 들고 오셔서 맛을 보라 하신다. 탁쏘는 송진내음과 함께 감미로운 맛이 바로 박선애님이 아니신가!

단란해야 했던 두분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1974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두분이 함께 구속되어 부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윤희보 선생님은 4년선고를 받게 된다. 네번째 감옥이다. 그리고 75년 사회안전법 시행과 함께 부인도 재수감된다.

"그 해 8월 동부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여섯살난 딸아이와 함께였지요. 출감할 때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도 재판도 없이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영등포 교도소로 이송시키면서 경찰은 어린 아이를 거리에 내던져 버렸어요. 오갈데 없이 거리를 헤매는 것을 동생(순애님)이 데려다 키우며 학교도 보냈지요. 아버지 이름 회자와 어머니 이름 선자를 따내고 이모부 성을 붙여 교회선으로 호적에 올렸지요."

참으로 비극이었다. 모진 인정이었다. 여섯살배기를 거리에 던져버리는 국가기관... 아버지 성도, 부모님 이름도 달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반복, 반공의 시뻘건 눈들이 미쳐 날뛰던 유신시대, 긴급조치시대를 가늠하는 조감도였다.

78년 부인은 출소하게 된다. 윤희보 선생님은 만기가 되고서도 전향을 하지 않아 청주감호소로 보내어진다. 그리고 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고서야 16년의 옥고에서 풀려난다.

주인된 세상, 하나된 세상

민중의 빗발치는 요구로 악법은 폐기됐다. 그러나 대체 입법인 보안관찰법이 옷만 바뀌입혀져 시민의 의지와 거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옥조이고 있다. 아직도 윤희보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따님이 한 지붕아래 살게 되었다.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거리의 천애고아가 돼 버렸던 어린 딸이 지금 어엿한 스물셋 예쁜 처녀로 컸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4년, 건대총여학생회 회장이기도 하다.

차갑고 살벌한 시대, 어려운 옥바라지를 하며 어

린 조카를 키우고 가르친 박순애님의 숨은 정성과 노력은 또 다른 이야기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그 분이 마련했고, 네분이 한식구가 되어 같이 살고 계시다.

아직도 윤희보 선생님은 고지혈증(다리가 차고 저려 추위에 못견뎌)으로, 부인께서는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 그리고 형제와 남매가 남북으로 흩어져 생사조차 모르는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겪고 계신다.

"어디 혼자만의 일입니까. 분단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지요. 주인된 세상, 하나된 세상을 이룩해야죠."

지칠줄 모르는 76세의 열정, 과연 북한산 자락 오색단풍이 몇번이나 변해야 선생님의 평생염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산그림자로 드리워진 수유마을을 떠나며 선생님의 시 '국화꽃' 정서가 가정에 가득하길 빌었다.

국 화 꽃

국화꽃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송이 송이 간직된 그윽한 모습(향기)
몽클한 이 내 마음 달래준다고.

상강(霜降)지낸 늦가을 꽃피움이어
곱게 곱게 단장한 청아한 모습
몽클한 이 내 마음 달래준다고.

자연울 터득하여 살아갈진대
은 인류의 진실된 장엄한 모습
설마 아니오리까. 아니오리까
곰비 임비 평화의 꽃 아름답히 필지어다.

85.10.29. <아내에게, 윤희보가 청주에서>

※ 상강:24절기 하나.10.24

※ 곰비.임비:일이나 사물이 거듭 모이는 풀

셋별보기

이 득 행(후원회원)

대문을 나서면 맨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를 판단하는 일정한 예비지식이 없음에도 올려다 본 하늘의 모양새로 그 날 하루의 일기를 가늠하는 타성이 어느덧 몸에 배인 것이다. 날이 꺾어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그 날의 별이를 공치게 되는 막노동자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습성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올려다본 신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밤사이의 빗무리를 채 거두지 못해 여명과 뒤섞이고 있었다. 작은 몸부림만으로도 여진처럼 남은 빛들에 힘을 주려는 듯이 그들은 반짝였다. 그러나 불같은 날숨이 난내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한 여름에도 새벽 5시 반의 별은 그 반짝임만으로는 하나의 아름다운 시어로 존재하지 못하고 냉정한 낮빛을 한 삶은 하루의 개방자였다. 그렇게 하여 힘든 노동에서 오는 휴식의 열망이 별에 대한 애קות은 원망으로 바뀌고 마치 별이 하루의 시작을 주재하는 전지자라도 된 듯한 오해를 한 가득 품게 되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의 일터로 가는 길에 별을 보게 되는 일상사를 '셋별보기'라는 그럴듯한 어휘를 취하여 이름하였지만, 실은 그 이면에는 독설과 배타적 질서로써 그토록 이른 일터행을 원망하는 심사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꺾은 날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신새벽의 절망을 하루 품을 팔아 이틀치의 꿈을 사야하는 막노동일꾼이 아니면 누구의 눈빛을 빌어 이해시킬 수 있을까! 넘쳐서 풍부한 가난과 너무 모자라 없는 듯한 지적재산 뿐이어서 오히려 터무니없이 검소해 보이는 그의 푸석한 이마 위로 실날같

은 원망의 실소만이 이른 아침의 먹구름과 잠시 벗어나다가 지나갈 뿐인 꺾은 날 새벽의 서늘한 비감을 비라도 내리는 날의 새벽은 그 휴식의 안도보다는 고단한 노동의 댓가를 그리워해야 하는 또 다른 기대감은 어찌해야 하고...

빗방울 비치는 날의 매혹적인 휴식의 유혹과 별빛이 주는 노동의 하루가 댓가로 지불하는 생존이 반목하며 공존하는 이 처절한 투쟁. 하나의 상징이면서 두 개의 꿈을 지닌 채 별은 자리하고 있었다. 열망과 질서, 기대와 배척 사이에.

하나의 대상에 두 개의 상반된 삶의 질곡을 담아 두고도 여전히 꿈은 그 바람의 크기만큼 자라기를 갈망하는 이 서툰 드러냄의 눈물겨운 노동의 아침. 그 곳에는 노동의 즐거움이 주는 삶과의 동질성에서 오는 넉넉한 하루의 풍요와 노동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힘겨운 일의 타성이 주는 삶에서의 소외가 잠정적인 화해의 낮빛으로 있었던 것이다.

삶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역설한들 힘찬 투쟁 뒤에 오는 따사로운 하나됨의 벅찬 감격이나, 빼앗겼을 때의 격한 울분이 되찾았을 때의 진한 감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주체적 자기인식이 없다면 그 역설의 값이란 또 얼마만한 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랴.

그리하여 '셋별보기'는 더욱 역설적이다. 그 안에는 왜곡된 노동구조의 빛과 어둠이 상존하고 노동의 즐거움을 파괴하는 대상들과의 치열한 투쟁에의 요구가 노동자 자신에게 강력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맑은 날, 대문을 나서면 맨 먼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오르다 보니 벌써 여섯번째네’

임 은 영(후원회원)

산행 전날 저녁 무렵,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산행을 염려하며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라 멈추시라 주문을 열심히 외웠더니만 다음날 아침 맑게 개인 하늘. 주문의 신통력에 남몰래 감탄하며 한 달만에 다시 만난 회원들과 북한산에 올랐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가을산의 화려한 정경을 대하며 모두들 입이 합박 벌어지고, 떨어진 단풍잎을 한뼘 두뼘 소중히 주워 모으는 나영이를 보면서 미소 짓고, 이 봉오리는 무엇이고 저 봉오리는 어디로 이어진다고 권오현 선생님은 북한산 뿐 아니라 도봉, 수락, 불암산 자락까지 이곳 저곳을 일러 주시느라 열심이다.

꽃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손 비비면서 올랐던 4월 첫 산행이 문득 떠오르고 어느새 두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한번의 수련회와 10월로 6번째의 산행을 맞이했음을 헤아리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머리속에 가득해진다.

‘함께 시작했는데 시립대, 경원대 팀은 몇달째 왜 참석을 안 하나? 물방울팀, 여울팀이 오늘은 안 보이네? 이경구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난 산행부터 느즈막히 함께 하기 시작했지

만 한 달 내내 산행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이지은·이병민씨 부부. 여혜정씨 많지도 반갑고, 온 가족이 함께 온 나영이네와, 황금수·안영선 선생님 노부부의 모습은 언제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오늘도 준비해온 음식들은 정성스럽기 그지 없고, 그 많은 양

의 음식을 거뜬히 먹어 치우는 왕성한 식욕들 역시 대단하다니까...’

몇 안되는 모범 참석 회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느껴보는 감회는 참여 회원수가 감소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안기부의 민가협 침탈이후였다는 것이다.

뒷풀이를 위해 우리는 산 아래 어느 방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산행 평가를 하는 시간에 이정규씨가 산행 기획팀을 꾸려서 더욱 짜임새 있고 회원들 스스로 준비하는 산행이 되게 하자는 제안을 해서 두서없이 흘러가던 여러 생각들을 멈추게 했다.

89년 발족한 양심수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해오면서 회원들의 구체적인 어우러짐을 통해 굳건히 자리 잡아가기 위해 시작되었던 소모임(등산반, 편지쓰기모임, 노래모임, 시사토론회, 좋은 영화보는 모임 등이 제안되었었다)으로서 1년간 진행한 산행을



이제 한 계단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모두 마음을
이 하였다. 한두번의 만남만으로도, 또는 보면 볼
수록 마냥 좋아지기만 하는 사람들과 여러 출소 장기
수 선생님, 선배 동지분들을 보시고 오른 산정에서
맛본 감동과 기쁨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이제 더욱
새롭게 다져간다면 뭐든 못하랴 하는 생각이 불쑥 드
는 것은 나쁜만이 아닐 것이다.

어느새 사위는 어둠에 잠기고 설새없이 나오는 민

요가락에 어깨춤이 덩실덩실. 회원들은 어깨위에 한
달 동안 쌓아둔 생활의 찌꺼기를 훌훌 털어 내고, 내
일부터 또 시작해야 할 일터에서 풀어헤칠 건강한 힘
들을 대신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비단 훌륭한
(?) 시력을 지닌 나의 눈에만 그렇게 비친 것이 아니
라, 과격한 옆사람에게 안경이 박살난 상훈아저씨의
눈에도 똑같이 보였으리라.

■서평 · 정해천 작, 노둣돌 창간호

「담 저편 은사시나무」

홍 전 영(후원회원)

"내 이야기를 풀어 쓰자면 소설보담 더 기막힐 거
여"

풀뿌리처럼 억센 손마디를 가진 노인네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며, 이런 소리를 하는 걸 가끔씩 듣는
다. 아마도 그것은 '소설'이란 보통 사람의 순탄한
인생행로와 다른, 기막힌 사연을 담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런데 나는 올 가을에 창간된 문학계간지 <노둣
돌>에 실린 소설 한편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소설의 줄거리가 너무나 낮이 익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박영준이 1981년, 늦겨울 어느날 새벽에 맞
닥뜨린 상황에 가슴 아파하는 감정의 색깔도 전에 겪
어본 것 같았다. 어슴푸레한 기억을 자꾸만 되씹다가
끝내 알아내고야 말았다.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

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에 실린 '진도 고정간첩단
사건'의 박영준씨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담 저편 은
사시나무>는 실재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주인공 박영
준도 현실속에 살아있는 인물이다.

80년 광주의 비극이 불안한 말로만 사람들 사이를
떠돌때까지 주인공은 그저 보통 시민이었을 뿐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갈아치울 때 부면
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갑작스레 얻은 간장염
으로 형편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하기에 그가 6.25
때 행방불명되어 생사조차 모르는 형 박영준을 수차
레 만나 간첩활동을 은밀히 해 왔다는 안기부의 각본
을 인정하기까지 겪어야 할 고초는 참담한 것이었다.
전쟁은 당대를 살아야 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상처

를 남겼다. 반세기 동안 정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 레드 콤플렉스가 만들어졌고, 제 피붙이라도 '사상이 의심스러운 짓'을 하면 외면하고 감추어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어두운 공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박영준과 박경준 형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민족사의 슬픈 모자이크 중 하나이다.

안기부 지하 밀실에 생사탐을 가둬놓고 60여일 동안 온갖 고문을 가한 수사관들은 간첩사건 하나를 만들어 놓은 댓가로 승진을 하고 화전놀이를 간댄다. 난수표를 수표라 알아듣는 간첩, 그 간첩의 아내는 북한에 가니 소련말도 하고 미국말도 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간장염으로 가족과 떠만 남은 사람을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 잠안재우는 고문 등 온갖 고문으로 닥달을 하니,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겠는가?

소설이 개연성 있는 허구의 세계를 그린다고 하는 고전적 정의에 익숙한 독자가 할지라도 주인공을 둘러싼 불가항력의 상황을 쫓아가다보면 소설안에 갇힌 분노가 현실 세계와 오버랩된다. 이것은 작가가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이 성공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소설의 인화점은 뭐니뭐니해도 주인공이 전향심사를 받는 도중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장면이다. 처음부터 투철한 신념을 가진 정치범도 아닌 주인공이 자기로 인해 산산조각난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전향을 결심하고 고뇌하다가 최후로 선택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굴욕을 당할 수 없는 자기 존엄성 확인이었다.

요 몇년간 장기수를 형상화한 소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소설의 경우처럼 행불자 가족이 간첩으로 조작되는 이야기는 보지 못했다. 단순히 소재를 확대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속에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치밀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80년대의 치열함, 진지한 고민에 반영된 80년대 후반기 소설의 성과들이 90년대 민족문학의 위상을

세우는데 빠짐없이 쓰여져야 하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전반적인 정치 허무주의, 멍멍한 정세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집착하는 소설들을 보다가 이 글을 읽으니 찬물로 머리를 감는 긴장을 느꼈다.

교도관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주인공의 시야에 은사시나무의 잎새가 빛을 뿜으며 서 있는 마지막 부분은 복선으로 소설의 중간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희망의 기운이 만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부끄럽게도 은사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상상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밝은 메시지만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다.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을 소설을 통해 깨닫는 모순을 보여준 소설, 아마도 <담 저편 은사시나무>는 내게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 월간 「말」지 정기구독을 받습니다.

월간 「말」지를 정기구독하실 회원님들은
37년간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신 이경구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락처 / 주간 - 711-0461
야간 - 755-8905

편지를 보냅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여느 해 보다 일찍 시작된 겨울, 매서운 칼 바람이 감옥 안의 보잘것 없는 이부자리를 파고 들 때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 한 장은 따스한 입김처럼 수인들의 언 몸을 감쌀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각 선생님(대전 3514) 1929. 11. 28일생(64세) 1958. 2. 9. 구속. 무기형 35년 복역

평북 영변출생. 김일성 종합대학 공학부 재학중 49년 인민군에 입대하여 특수부대에 복무. 1959년 남파중 체포, 무기형 받음. 73년 대전교도소에서 강제전향 때 교회사가 총을 머리에 겨누며 협박했어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상적 순결을 지켜냈다.

책읽기를 좋아하며, 영어, 로어, 중국어, 일본어, 독어로 책을 읽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북에 있는 무의탁자이다.

●김동기 선생님(광주 5042) 1932. 10. 19일생(61세) 1966. 5. 18. 구속. 무기형. 29년 복역.

함북 성진(김책시)에서 출생. 고등학교 다닐 때 인민군에 입대, 제대 후 평양상업대학 졸업. 상업성 근무. 66년 당의 임무를 갖고 남파 중 체포, 무기형을 받음.

총상으로 오른쪽 다리와 허리를 잘 쓰지 못하면서도, 밝고 명랑한 성격에 머리가 좋다. 가족 모두 평양에 있는 무의탁자이다.

■이공순 선생님(광주 5041) 1934. 12. 3일생(59세) 1967. 12. 10. 구속. 무기형. 26년 복역.

충남 서천 빈농출신. 농사를 하다가 50년 인민군에 입대. 전투에 참가. 제대후 철도부분에서 일하다 당에 소환. 임무수행차 고향에 왔다가 체포. 무기형.

한 겨울에 팬티만 입히고 모포도 주지 않고 마루바닥에 혼자 있게 하여 손발이 얼어 마비되었어도 굽히지 않고 전향을 거부했다. 부인과 자식이 북에 있고, 고향에 동생이 있으나 가난하여 면회도 못오는 실정이다.

주소:305—251, 대전 직할시 유성구 대정동 36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1

하얀 옥담위에도 가을이 한창 피어

최 원 극

메마른 땅, 하얀 옥담 위에도 가을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 였는데 역시 가을은 어김없이 또 우리에게 선 선한 바람과 여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마다 저는 '변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새삼스러운 의미와 '버티면 반드시 이긴다!'는 우리 운동의 원칙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어느덧 찾아온 계절의 변화처럼,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사회의 변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게 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우리 장기수 선생님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한번의 겨울이라도 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는 소원과 염원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더 애쓰며 열심히 싸워야 하겠지요. 그래도 이번에 전개된 국보철 싸움과 범민족대회 기간의 선전은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저희들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리던 그 모습들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생하신 여러 어머님들과 간사분들에게 이곳에 있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더 올바르게 당당한 삶, 통일을 위한 큰 일꾼으로 자신들을 갈고 닦는 것으로 조그만 보답이라도 하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권 선생님!

민주와 통일의 대로가 눈 앞에 보이는 지금 더욱 건강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튼튼한 몸, 건강한 정신으로 권 선생님과 함께 어깨걸고 전진할 날을 가슴속에 그려 봅니다. 그 때에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보내주신 소설(들)과 영치금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릴것이 없어서 운동장 한 모퉁이에 저희들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애써 가꾼 나팔꽃 한 송이 보내 드립니다.

기쁨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전주에서

그리움을 담아 극.

* 최원극—자민통중양위원, 5년선고, 전주교도소 수감중

■알려 드립니다.

- 10월 6일/ 안희천 선생님이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셨습니다.
- 10월 10일/ "안기부의 민가협 음해공작 및 괴문서 출현에 대한 기자회견" (9시, 기독교회관)
일명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해, 계속되는 불법연행과 괴문서 출현 등 일련의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10월 11일/ 고 신항식 선생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 10월 14일/ "안기부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9시, 향린교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와 기독교대책위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10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무하씨 구속에 대한 대응방안과 안기부에 빼앗긴 자료를 찾는 문제, 그리고 10월 산행 등 후원회 일반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김근태씨 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의 과제" — 7시, 기독교회관 2층
- 10월 15일/ 임방규 선생님의 어머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윤석양 이병 명예제대 및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7일 유가협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8일/ 양심수 후원회 10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행에는 모두 22명이 참석하였고, 오전 10시에 그린파크 앞에서 만나 북한산을 다녀왔습니다.
산행후 신나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 10월 20일/ 조무하씨가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었습니다.

수번은 57번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사로운 격려편지를 부탁드립니다.

- 양심수 자녀돕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달 양심수 자녀돕기 대상으로 조무하씨 자녀(국민학교 4학년, 6학년)와 나종인씨 자녀(고교 1학년, 3학년)를 선정하여 각 10만원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 10월 22일/ 후원회 방문

송실대 민주동문회에서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 후원사업 일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 10월 27일/ 재판 방청

백태웅(사노맹)-무기징역 선고

구해우(자민통)-항소심

- 10월 29일/ 양심수 후원회 소식지 12호를 발송하였습니다.

- 10월 30일/ 김석형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31일/ 영치금 발송

태재준씨의 4명의 양심수에게 각 2만원씩 발송했습니다.

■ 11월 재판 안내

- 11월 11일 강영한(사노맹)—10시

박옥남(사노맹)—2시

김재원(사노맹)—3시

- 11월 12일 정춘생(사노맹)—10시

김낙중 1차 공판—2시, 대법정

- 11월 17일 구해우(자민통) 항소심—4시, 309호

- 11월 18일 진용근, 이근희(중부지역당) 1차 공판—2시, 317호

박재춘(사노맹)—2시, 311호

- 11월 20일 태재준 1차 공판—2시

이옥순(사노맹)—10시, 311호

- 11월 25일 심상득(중부지역당)—10시, 318호

- 11월 26일 김낙중 2차 공판—10시, 417호

- 11월 30일 임인출(중부지역당)

■ 10월 1일~31일 구속자 현황

곽현주(안동 간호전문대 졸)—10월 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조재경(안동 간호전문대 졸)—10월 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임미영(안동대졸)—10월 9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조현일(경남대졸)—10월 26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손민영(중부지역당 사건)—10월 18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후원회 소식지...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들의 공간입니다.

후원회 소식지는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이 계속될 때
좀더 나은 소식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시, 콩트, 삽화, 감상문 등)가 있으면
언제라도, 어떤 글이라도 주저말고 보내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민가협에서

네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엽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의 문턱에서 갑자기 내려간 수은주를 바라보며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는 양심수의 겨울나기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매년 겨울 마다 민가협이 마련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올 해에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이 공연을 할 때마다 이러한 공연이 더 이상 올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해 왔지만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양심수는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42년이라는 무한대의 징역을 살고 있는 세계 최장기 양심수 김선명, 이종환씨가 또 한 해 복역연수를 추가해야 할 시점에서 이들의 석방을 노래하는 일, 인권유린의 대명사 5공을 훨씬 능가하는 6공의 엄청난 양심수 사태, 전세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운동 등은 지금 처해있는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한차례 공안사건의 한파가 불고 난 지금 양심수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갑자기 뒤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의 모든 투쟁은 감옥의 동지들과 함께 할 때만이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수 석방투쟁'은 바로 민주정부수립과 민주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의지를 모아, 올 해도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공연일정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오후 6시

1992년 12월 12일(토) 오후 3시, 6시

장 소 : 세종대학교 대양홀

2. 출연자

노 래 : 정태춘, 박은옥, 희망의 노래 꽃다지, 노래마을, 김영남, 류금신, 박종화,
한결(장애자 노래패), 소리다리(장애자 수화패), 권혁인 등

연 극 : 극단 아리랑, 원창연, 황경선 등

시 인 : 김남주 등

춤 : 김경란 등

연 출 : 문호근

※ 회원 여러분께는 저희 양심수 후원회에서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판매하실 표가 필요하신 분은 민가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3-2606)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지국사범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타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지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협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양심회소식

보내는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

받는이 :